



2050 세종의 꿈은 '탄소중립도시'

- 행복청·세종시·교육청 탄소중립 업무협약 체결 및 정책세미나 개최
- 기후위기 대응하여 탄소중립적인 행복도시의 건설, 운영 및 교육 등 협력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세종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 이하 행복청),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 이하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고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업무협약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체결하고, 탄소중립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지난 4월 정부의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관내 기관 간 협력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행복청, 세종시, 교육청은 환경의 날을 맞이해 기관 간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협약기관은 ▲탄소중립도시 건설·운영·교육 ▲탄소중립 녹색성장 계획 수립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대응 ▲친환경 에너지 특화도시 조성 ▲제로에너지 공공건축물 건립 확대에 나서게 된다.

또한 ▲행복도시 탄소중립 친환경 모형의 교육·해외 전파 ▲탄소중립 전시·학습공간 조성 ▲탄소중립 시범학교 교육 등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상래 행복청장은 “행복도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할 행정수도이므로 모범적인 친환경 도시로 건설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이 있다”라며 “정부의 '탈탄소 정책기조'를 행복도시에 모범적으로 구현하도

록 세종시와 세종교육청과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탄소중립 전환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행복도시 내 건설을 책임지는 행복청, 우리의 미래 아이들의 교육을 맡고있는 교육청과 협력하면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이 보다 수월해질 것”라며 “탄소중립이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학생의 조기 환경교육이 필요하다”라며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에 참여하는 행복한 생태 시민 양성을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협약에 이어서는 산·관·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세미나’가 진행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협력방안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자들은 ▲세종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방향(김희산 세종시 과장) ▲탄소중립·녹색성장 교육방향(최복락 세종시교육청 장학관) ▲행복도시 탄소중립 추진전략(김승현 행복청 과장)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활동 방향(이채연 세종환경교육센터장)을 발표했다.

이어서는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장을 좌장으로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탄소중립·녹색성장에 대한 협력 방안을 토론했다.

담당 부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녹색에너지환경과	책임자	과 장	김승현 (044-200-3240)
		담당자	사무관	장태성 (044-200-3241)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희산 (044-300-4210)
		담당자	사무관	안병철 (044-300-42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래교육과	책임자	과 장	김동호 (044-320-2500)
		담당자	사무관	최복락 (044-320-2530)



붙임

행사사진(당일 첨부)

